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루카 16, 25)



〈부자와 라자로〉, 레안드로 바사노, 1595년

[제1독서]아모스 6,1ㄱ-4-7

[화답송] 시편 146(145),6ㄷ-7.8-9ㄱ.9ㄷ-10ㄱ
(◎ 1ㄴ)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티모테오 1서 6,11ㄱ-16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복음] 루카 16,19-31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59] 너희는 가진 것 팔아
- 봉헌성가: [221] 받아주소서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 성체성가: [165] 주의 잔치
[502]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 파견성가: [289] 병인 순교자 노래

“너는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¹⁹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²⁰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²¹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²²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²³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²⁴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²⁵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²⁶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²⁷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²⁸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²⁹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³⁰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³¹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Jesus said to the Pharisees:

“There was a rich man who dressed in purple garments and fine linen and dined sumptuously each day.

And lying at his door was a poor man named Lazarus, covered with sores, who would gladly have eaten his fill of the scraps that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Dogs even used to come and lick his sores.

When the poor man died, he was carried away by angels to the bosom of Abraham.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and from the netherworld, where he was in torment, he raised his eyes and saw Abraham far off and Lazarus at his side.

And he cried out, ‘Father Abraham, have pity on me.

Send Lazarus to dip the tip of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my tongue, for I am suffering torment in these flames.’

Abraham replied, ‘My child, remember that you received what was good during your lifetime while Lazarus likewise received what was bad; but now he is comforted here, whereas you are tormented. Moreover, between us and you a great chasm is established to prevent anyone from crossing who might wish to go from our side to yours or from your side to ours.’

He said, ‘Then I beg you, father, send him to my father’s house, for I have five brothers, so that he may warn them, lest they too come to this place of torment.’

But Abraham replied, ‘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

Let them listen to them.’ He said, ‘Oh no, father Abraham, but if someone from the dead goes to them, they will repent.’

Then Abraham said, ‘If they will not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 neither will they be persuaded if someone should rise from the dead.’”

묵상

오늘 복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지옥 벌의 영원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한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부자는 지옥 불의 맹렬함에 후회를 하지만 심연으로 갈라진 천당에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살아 있는 동안 자기만족에 빠져 가난한 라자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자신의 다른 가족은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강을 건너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주님께 바쳐질 때 반드시 천상의 보상을 받습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권세를 누리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먼저 보살피는 분이십니다. 오늘 비유는 이 점을 잘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두려운 것입니다. 천당에서는 이 세상에서 첫째가 꼴찌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오늘 복음의 부자와 같이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무한한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권세 있는 사람을 낮추시고 가난한 사람을 들어 높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후에 지옥에서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류한영 베드로 신부)

본당 공동체 창설 30주년 기념 불우 이웃 돕기 걷기 대회



본당 공동체 창설 3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행사로 ‘불우 이웃 돕기 5Km 걷기 및 뛰기 대회’가 지난 17일(토) 오전 8시부터 시작되었다. 성당과 가까운 그린브리아 파크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새로 부임한 백인현(안드레아) 주임 신부와 성원경(대건 안드레아) 보좌 신부를 포함하여 128명의 본당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김돈현(마이클) 형제가 25분을 기록해 첫 번째 결승 타이프를 끊고, 간발의 차로 성원경 보좌 신부가 뒤를 이어 들어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주일학교 CCD 학생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이 가운데 6학년 남유승 군이 좋은 기록으로 청소년부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른 아침부터 가족들을 따라 나온 어린이들 모두 끝까지 5Km 코스를 당당히 마쳤다. 행사를 주최한 복지부의 강동훈(요한) 부장은 “새벽부터 행사 진행과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준 봉사자(레지오 마리아, 꾸르실료, 엠이, KoC, 청소년 사도회 등)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보다 더 맛있을 수 없는 순두부 찌개를 제공해 준 꾸르실료와 성모회 자매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로 원주까리파스의 도네이션을 포함해 3200 달러의 기금이 모였다.



걷기대회 수상자들

교우서

하나된 공동체 30주년에

강금생 안나

- 떡갈나무 숲사이로
갈대 우거진
복정밭 일구어 신심의 씨앗 뿌려
거두워 온지 어언 30년
- 뜨거운 정성 모아
형제 자매 하나 되어
허물은 감싸고
사슬은 풀어주고 넘치는 사랑 안에
주님 임하소서
- 울창한 구원의 처소
봉헌하는 좋은 날
주님 임하소서
- 찬미의 노래 부르며
얼싸안고 두동실 찬미노래
영김도 쉽다없이
마음의 강물 도도히 흐르는 사랑의 성심
- 성숙한 신앙인 이웃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길이 빛나리
-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영원히

하상 한국학교 한가위 행사

하상 한국학교에서는 한국의 4대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에 맞아 학생들이 한국 고유의 풍습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7일(토) 학생들은 추석의 의미와 놀이, 음식 등에 대해 배우면서 학교에서 제공한 송편도 맛보았다. 또한 학부모회에서 마련해 준 송편 재료로 직접 송편을 만들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하상 한국학교에서는 자녀들이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잊지 않고 조상과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기를 바라는 취지로 해마다 한가위 행사를 열고 있다.



레지오 마리아

꼬미시움 및 꾸리아 월례회의 개최



본당의 대표적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의 꾸리아 월례회의가 9월 18일(일) 10시 미사 후 하상관에서 개최되었다.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 (단장 정우진 미카엘)와 은총의 모후 꾸리아 (단장 이경구 그레고리오)에 각각 30여 명 브레시디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대진교 협조 문제와 10월 9일에 있을 야외행사 및 홍보의 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이날 회의에는 백인현(안드레아) 주임 신부님이 참석, 새 간부들에게 강복을 주시며 격려하셨다.

한편 9월 11일에 있었던 꼬미시움 (단장 김국 스테파노) 월례회의에서는 47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협조 및 야외행사 공지가 있었다.



겸손의 어머니 브레시디움 가두 선교 실시

본당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의 가두 선교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브레시디움이 가두 선교에 가세하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 소속 겸손의 어머니 브레시디움 (단장 노응홍 아브라함)이 바로 그 팀으로 지난 일요일인 9월 18일 오후 센터빌 롯데 식품점 앞에서 노 단장을 비롯하여 김영석 마티아 (서기), 강옥규 바오로 (회계) 단원이 첫 가두 선교에 나섰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나중에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후문이다. 이로써 겸손의 어머니 브레시디움은 가두 선교에 나서는 본당의 아홉 번째 브레시디움이 되었다.

하상회 추석 잔치



지난 18일(일) 친교실에서 열린 하상회 추석 잔치에 회원 45명이 참석하여 본국으로 부임 받은 정인준(파트리치오) 전 주임 신부를 위해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바친 후 새로 부임한 백인현(안드레아) 신부의 인사와 강복으로 추석 잔치를 시작했다.

K of C 단체가 준비한 맛있는 점心和 떡, 과일, 막걸리를 나누며 김요한, 지요한 형제의 노래방 반주, 김순길(바오로), 백청길(시몬), 양방우(요한), 박장호(토마스) 부회장의 노래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안나회 정기 모임



안나회원 80여 명은 지난 18일(일) 친교실에서 9월 정기 모임을 가졌다. 백인현 주임 신부의 인사와 강복에 이어 생일을 맞이한 6명의 회원을 축하했다. 또한 9월 초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서흥순 글라라 회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Saint Story

Feast of *St. Michael, Gabriel, and Raphael, Archangels*
September 29th

St. Michael *the Archangel*

Saint Michael the Archangel isn't a saint, but rather he is an angel, and the leader of all angels and the army of God. This is what the title "*Archangel*" means, that he is above all the others in rank. St. Michael has four main responsibilities or offices, as we know from scripture and Christian tradition.

- The first is to combat Satan.
- The second is to escort the faithful to heaven at their hour of death.
- The third is to be a champion of all Christians, and the Church itself.
- And the fourth is to call men from life on Earth to their heavenly judgment.

Today, St. Michael is invoked for protection, especially from lethal enemies. He is also the patron of soldiers, police and doctors.



St. Gabriel *the Archangel*

St. Gabriel is an angel who serves as a messenger of God to certain people. He is one of the three archangels. Gabriel is mentioned in both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s of the Bible. The Book of Luke states he was sent from God to Nazareth to visit the virgin married to a man named Joseph. Gabriel said to Mary, "Hail, thou that art highly favoured, the Lord is with thee: blessed art thou among women." (Luke 1:28)

"Fear not, Mary: for thou hast found favour with God. ³¹ And, behold, thou shalt conceive in thy womb, and bring forth a son, and shalt call his name JESUS. ³² He shall be great, and shall be called the Son of the Highest: and the Lord God shall give unto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³³ And he sha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 ever; and of his kingdom there shall be no end." (Luke 1:30-33)

Gabriel told Mary she would conceive from The Holy Ghost and the baby will be the Son of God. Gabriel is recognized as the patron saint of messengers, telecommunication workers, and postal workers.

St. Raphael

St. Raphael is one of the seven Archangels who stand before the throne of the Lord, and one of the only three mentioned by name in the Bible. He appears, by name, only in the Book of Tobit. Raphael's name means "*God heals*". This identity came about because of the biblical story that claims he "healed" the earth when it was defiled by the sins of the fallen angels in the apocryphal book of Enoch.

Disguised as a human in the Book of Tobit, Raphael refers to himself as "Azarias the son of the great Ananias" and travels alongside Tobit's son, Tobiah. Once Raphael returns from his journey with Tobiah, he declares to Tobit that he was sent by the Lord to heal his blindness and deliver Sarah, Tobiah's future wife, from the demon Asmodeus. It is then that his true healing powers are revealed and he makes himself known as "the angel Raphael, one of the seven, who stand before the Lord" **Tobit 12:15**. St. Raphael is one of the seven Archangels who stand before the throne of the Lord, and one of the only three mentioned by name in the Bible.

St. Raphael is the patron saint of travelers, the blind, bodily ills, happy meetings, nurses, physicians and medical workers. He is often pictured holding a staff and either holding or standing on a fish.

CCD-CYO News

PTO & Parents Meeting

On Sept. 18, Sunday school parents were welcomed by School's PTO. The day consisted of many discussions, including an introduction of vice principals (CCD and CYO), members of PTO and school's activities for 2016-2017.

Father Seong especially showed great appreciation to all volunteered room moms for their dedication.



■ PTO List (2016-2017) ■

- President : *Lim, Eun Kyung (Maria)*
- Vice President, CCD : *Song, Joo Hee (Sarah)*
- Vice President, CYO : *Choi, Soon Young (Cecilia)*
- Secretary : *Yoon, Dong Sook (Paola)*
- Clerk : *Woo, Seong Bae (Angela)*

• Room Parents

CCD-K	김 그라시아 (지윤)
CCD-1	노 레아 (희정)
CCD-2	서 성혜 (이사벨라)
CCD-3	이 예승 (미카엘라)
CCD-4	이 혜승 (가브리엘라)
CCD-5	권 미경 (모니카)
CCD-6	김 지민 (올리안나)
CCD-7	김 영주 (카타리나)
CCD-8	이 테레사
CYO-9	김 마리아 (막달레나)
CYO-10	박 레지나
CYO-11	박 루시아
CYO-12	이영희 (헤레나)

1 Safe Environment Plan/FCC
(Formation in Christian Charity)
Training for the 1st-12th Grades

- When : Oct 2nd

2 Fall Fire Drill

- When : Oct 2nd at 11:10am

구원의 채찍 성전 정화

온유와 자비의 표상인 그리스도는 ‘성전 정화 Christ Cleansing the Temple’에서 격렬한 분노를 표출한다. 17세기 미술사에서 강한 가톨릭교회의 수호자였던 엘 그레코(El Greco, 1541-1614)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대항한 반종교개혁운동에 동참하고자 이 주제로 4점의 작품을 그렸는데, 내셔널 갤러리는 운 좋게도 한 점을 소장하고 있다. 성전 정화는 그리스도가 가나의 결혼식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수난 직전의 주요한 사건이다. 성전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비리에 철퇴를 치는 내용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장면으로 이전부터 도상화되었다. 관람객은 번잡한 시장 바닥으로 변한 신전에서 좌판을 엮고 폭리를 취하는 장사치들과 환전 상인을 징벌하는 그리스도의 격노한 행위를 볼 수 있다.



〈성전 정화〉 엘 그레코, 유채화 65.4 x 83.2 cm, 1570

엘 그레코는 그의 고향 크레타 양식의 특성인 평면 공간, 드라마틱한 운동감, 탄탄한 화면 구성에 복잡 정교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적 배경으로 신성한 경내를 웅장하고 고전적인 르네상스 궁전으로 차용했다. 대담한 색상과 반사가 심한 화면은 베네치아 미술의 영향으로 화가의 독자적 화풍이 확립되기 이전의 초기 작품이다. 관람객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면모를 부각시켜 강조하는 보편적인 작품과는 다르게 물리적 완력이 등장하는 흥미롭고 신선한 주제에 강한 호기심을 보인다. 광풍이 몰아치듯 성전을 뒤엎는 순간, 폭발하는 호된 노여움이 담긴 화면은 시각언어로서의 텍스트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달한다. 화면 전체는 군중들의 과장된 불경스러운 행동과 움직임으로 격앙된 소동을 강조하여 통일감을 주지만, 내용상으로 철저한 이분법적 구성으로 최후의 심판처럼 의인과 악인의 자리를 양분하듯 도식화된 성서 내용을 따른다.

관람객의 시선은 화면 정 중앙에 매서운 눈길로 오른손을 들어 채찍을 휘두르는 그리스도에게 향한다. 그리스도의 징벌적 가책을 당한 오른편 인간군상들은 고통스런 몸부림으로 상의가 벗겨진 여성들과 옷통 벗은 왜곡된 신체의 젊은 남성들은 탈출을 시도하며, 동물들과 뒤엉킨 신전은 아수라장이다. 혼돈의 와중인 오른편과는 다르게 왼편 공간의 아이들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보낸다.

그리스도 주변의 나약하고 노쇠한 인물들은 그리스도의 왼손 손짓에 따라 불안과 동요를 잠재우며 안정을 찾는다. 화가는 바닥 화면도 양분하여 오른쪽은 단색 회색의 무의미한 공간으로, 왼쪽은 선명한 노랑과 파랑의 연속적 무늬로 미래의 공간을 암시한다. 그러나 오른편 아치 뒤로 펼쳐진 무한한 푸른 하늘은 참회의 기회를 부여받은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통로로, 그리스도는 자비를 보여준다.

엘 그레코가 활동하던 당대 스페인은 유럽 최강국의 위상을 지닌 해가 지지 않는 팍스 에스파냐로, 국왕 필립페 2세는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가톨릭 교회의 정통성을 옹호했다. 성화를 그리기 위한 삶을 살았던 그의 ‘성전 정화’는 트리엔트 공의회가 가톨릭 교리와 체계 재정비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적극 추진한 주제였다. 만인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타락시킨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엄한 단죄는 미움의 원색적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단면이다. 그리스도는 죄와 악행을 참회함으로써 그의 품으로 회귀하라는 초대와 메시지를 긍정적 차원의 분노로 제시한다. 관람객은 그리스도의 상반된 두 손에서 정의와 사랑을 확인한다. 기독교 미술을 통해 과거인들은 종교를 보았지만, 현대인은 과거 위대한 화가의 예술과 종교에서 성서를 읽고 이해하며 하느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선다.

1 K of C 정기모임

• 일시 : 9월 25일(일) 오전 11:30(B-1,2)

2 성소자 모임(퀴바디스)

• 일시 : 9월 25일(일) 오후 1시(B-3,4)

3 요한회 월례회

• 일시 : 9월 25일(일) 오전 11:30(B-3,4)
• 대상 : 50대 형제 자매

4 본당 꾸르실료 야외 울뜨레야

• 일시 : 9월 30일(금) - 10월 2일(일)
• 장소 : Blue River Farm
(2952 Old Blue Ridge Tnpk Syria, Va 22743)
• 문의 : 곽노덕 도미니코 (703) 608-9664

5 청소년 사목 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 10월 2일(일) 오후 1시
• 장소 : South Riding Golf Club
• 참가비 : \$100.00 (중식, 석식 포함)
• 친교실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윤희 안젤라 (703)282-4733

6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일신심

• 일시 : 10월 1일(토) 오후 6:15, 성당

7 파티마 사도직 쉼모임

• 일시 : 10월 1일(토) 오후 3시(B-4)

8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10월 2일(일) 오전 11:30(B-3,4)

9 청소년 사도 임원회의

• 일시 : 10월 2일(일) 오후 1시

10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10월 2일(일) 오후 1시

11 주일학교 1학기 화재 대피 훈련

• 일시 : 10월 2일(일), 오전 11:10-11:30
• 장소 : 하상관과 하상관 주변 구역
(하상관 지하 및 체육관 포함)
•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상관 출입이 금지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훈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 주최 건강검진의 날

• 일시 : 10월 8일(토) 오전 8:30 - 오후 12:30
• 장소 : 본당 친교실
•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갑상선 등의 검사를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독감 예방 접종 (무보험자 무료)
• 문의 :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240) 683-6663, (703) 354-6345

13 의료 봉사자 모집(주일 8시 미사)

• 본당 8시 미사중 위급한 환자 발생시 도와주실 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찾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최재필 제프리 (703) 589-6580

성숙한 신앙인, 이웃과 함께, 하나된 공동체

☆ 9/25 대친교

- 일시 : 9월 25일(일) 오전 8시, 10시, 11:40분 미사 후(친교실)
- 대상 : 전 교우
- 메뉴 : 잔치국수, 떡, 과일

☆ 9/25 성경 퀴즈 대회

- 일시 : 9월 25일(일) 오후 2시 - 5시 (친교실)
- 대상 : 전 교우
- 접수 : 9월 25일 8시, 10시, 11:40 미사 후
- 문의 : 서경원 마르티노(571) 236-7071
- 성경 필사노트 전시회가 성경 퀴즈 대회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있습니다.
- 노트 전시를 원하시는 분들은 회의실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9월 25일(일)	연중 제26주일	공동체 창설 30주년 대친교, 성경퀴즈 대회(14:00-17:00, 친교실), K of C (11:30, B-1,2), 요한회(11:30, A-1), Quo Vadis 모임(13:00, B-3,4), 주일학교 교사회회의(13:00,교무실)
26일(월)	연중 제25주간 월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27일(화)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념일	하상 성인학교(9:30, 하상관), 레지오 마리아(20:00, 친교실), 예비자 교리(20:00)
28일(수)	연중 제25주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29일(목)	성 미카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아침 미사(6:00, 성당)
30일(금)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기념일	하상성인학교(9:30, 하상관), 저녁 미사(19:30)
10월 1일(토)	연중 제26주간 토요일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파티마 사도직 쉼모임(15:00, B4), 파티마 첫 토요일신심(18:15-19:15)
2일(일)	연중 제27주일	구역봉사자 교육(11:30, B-1,2), 청소년 사목회(13:00, B-3,4), 청소년 기금 마련 골프대회(13:00, South Riding Golf Club), 성모회 임원회의(13:00, B-1)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 9월 29일 (목) 오후 9시-11시**
- **가톨릭 소식** :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툰즈에서 온 편지** : 복학을 마치고 남수단 봉사를 떠난 25살 청년의 이야기
 - **인터뷰, 아 사람** : 음악치료사 김경희 마리아 3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가는 길을 위로하는 성악가
 - **명불허전** : 평화방송 명강의 앵콜 시리즈 정재봉 신부 "생활속 윤리"

교황님의 9월 기도지향

일반 지향 **인간 중심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 중심 사회의 건설과 공동선에 기여하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지향 **복음 선포**
그리스도인들이 성사에 참여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복음 선포 사명을 더욱 잘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교황님의 10월 기도지향

일반 지향 **언론인**
언론인들이 강한 윤리 의식을 지니고 언제나 진실을 존중하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지향 **전교주일**
전교주일에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복음의 기쁨과 이를 선포할 의무를 새롭게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9월 18일 (연중 제25주일)

주일헌금	\$ 7,900.02
교무금	\$ 13,937.60
교무금(신용카드)	\$ 3,060.00
특별헌금	\$ 200.00
2차 헌금	\$ 2,422.40
합계	\$ 27,520.02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명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민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창택(비오), 김영식(베드로)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마카벨),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또), 손범기(펠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이슬(루시아), 고미엘(마카렐라), 에스터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신재훈(대건안드레아)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용자, 재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가을학기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챌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신디 리 부동산 텔리 전문 사업체 이루시아 703-338-0008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마태오 흥 종합보험 자동차, 집, 사업체, 은퇴연금 장기간호 / 생명 / 건강보험 703-969-8956 703-969-8954	Golf Lesson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손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찬들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서양화 아크릴, 수채화, 유화 김이레나(교사자격증) 703-927-9229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5분 도정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Sola Salon GMU 유니버시티몰 내 #5 Leah 헤어컷 : \$10 703-868-9427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작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	---	--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